西團山文化의 돌널무덤 연구

박 상 빈*

목 차

1. 머리말
2. 유적의 분포
3. 돌널무덤의 형식분류
(1) 분류기준
(2) 형식
(3) 시기구분
4. 돌널무덤의 크기 비교
5. 맺음말

Ⅰ. 머 리 말

西團山文化는 吉林省 중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문화이다. 西團山文化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문화가 "西團山文化"라는 하나의 독립된 문화로 자리잡게된 것은 東北考古發掘團이 1964년에 吉林市 西團山유적을 조사하면서 西團山유적과 문화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유적들을 "西團山文化"라는 새로운 문화로 설정[1] 하면서 부터이다.

西團山文化는 요녕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 西團山文化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중국 학계이다. 중국학계에서는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된 1930~40년대에는 西團山文化를 '석기시대문화'로 인식하였다. 이후 1940년대 말~70년대에 이르러 西團山, 騷達溝, 土城子, 星星哨 등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면서 청동기시대 문화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내용, 족속 문제, 분포 범위, 연대 문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西團山文化"라는 개념이 이 때에 확립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지표 조사와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西團山文化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로써 무덤, 집자리, 유물 등 각 분야별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뒤이어 종합적인 연구[2]가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西團山文化를 西周 初期에서 秦漢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1) 東北考古發掘團, 1964.「吉林西團山石棺墓發掘報告」『考古學報』1期, pp. 45-46.

2) 董學增, 1994.『西團山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

교체기까지 존속한 농경을 위주로한 청동기시대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를 내놓았는데, 1960년대에는 西團山文化를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걸친 문화로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공귀리 유형과 직접적인 계승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3] 그후 西團山文化圈에서 비파형동검 등의 새로운 자료가 증가하면서 西團山文化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서단산자유형을 공귀리유형과 분리하고 그 담당자를 공귀리유형과 같은 종족집단으로 보았다.[4] 이후 북한학계에서는 기존의 견해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연구들[5]을 내놓았다.

남한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西團山文化가 국내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북아시아의 돌널무덤에 대한 논문[6]과 西團山文化를 소개한 논문[7] 정도로 아직까지 많은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西團山文化의 여러 문화내용 중에서 특히 무덤은 서단산문화의 특징을 대표하는데, 西團山文化 地域에서 조사된 무덤은 돌널무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돌널무덤은 고인돌과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돌널무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사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이었다기 보다는 집자리나 고인돌 발굴에 부가되어 조사되었고, 주변지역 무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西團山文化의 무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돌널무덤의 형식분류와 시기구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국내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3) 리병선, 1966.「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 청동기시대 문화와 그 주민」『고고민속』 3期. 이러한 인식은 『조선고고학개요』(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편, 1977)에까지 이어진다.

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조선전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265-271.

5) 황기덕, 1986.「길림, 장춘지방 비파형단검문화의 연대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3期.
박진욱, 1987.「길림, 장춘 지방의 좁은놋단검관계유적유물의 성격(1)」『조선고고연구』 3期.
———, 1988.「길림, 장춘 지방의 좁은놋단검관계유적유물의 성격(2)」『조선고고연구』 1期.
김동일, 1988.「돌관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期.

6) 李鐘宣, 1976.「韓國 石棺墓의 硏究」『한국고고학보』 1집.

7) 崔茂藏, 1992.「濊貊과 西團山文化」『수촌박영석교수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上)』.
崔茂藏, 1994.「예맥족의 西團山文化論」,『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2. 유적의 분포

西團山文化 분포지역은 길림성 중부지역으로 동쪽으로 長廣才嶺과 威虎嶺, 서쪽으로 伊通河와 東遼河 유역, 남쪽으로 渾河와 遼河 상류, 북쪽으로 拉林河 양안을[8]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第2松花江과 伊通河, 飮馬河, 輝發河가 거미줄처럼 흐르고 있다. 대부분 지역은 해발 500m 이하로 구릉지대가 많다.

西團山文化에 속하는 유적은 지금까지 약 400여 곳에서 조사[9]되었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은 第2松花江이 흐르고 있는 길림지구이다. 돌널무덤은 20여개 유적에서 조사되었다(그림 4).

(1) 星星哨

星星哨는 飮馬河로 흘러드는 岔路河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3차례에 걸쳐 86기[10]가 발굴되었다. 무덤은 A區·B區·C區·D區로 구분되는데, A區(35기)와 D區(22기)는 무덤이 밀집되어 있으며, B區(6기)와 C區(23기)의 무덤은 열을 이루고 있다. 무덤은 돌널무덤 제1형식과 제2형식이 모두 조사[11]되었는데,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많다. 제2형식은 C區의 1기를 제외하고 모두 A·D區에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무덤 구역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에서 출토된 껴묻거리는 3차 발굴된 49기에서 155점이 출토되었는데, 석기는 모두 갈아서 만들었다. 토기는 모두 손으로 만든 모래질 민토기이다. 항아리는 목이 짧고 바라진 항아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청동기로는 초기형에 속하는 비파형동검이 있다. 이 밖에 질그릇 안에 돼지 머리뼈와 이빨이 출토된 무덤이 7기가 있다. 껴묻거리가 가장 많은 무덤은 16점 출토된 DM16호 무덤이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은 2970±100 BP(보정값[12] 서기전 1376-1021)로 측정되었으며, 대체로 西周 早·中期~春秋 早期로 보고 있다.[13]

---

8) 劉景文, 1983.「西團山文化墓葬類型及發展序列」『博物館研究』1期, p. 57.
9) 董學增, 1994.『앞 책』, pp. 18-234.
10) 吉林市文物管理委員會·永吉縣星星哨水庫管理處, 1978.「永吉星星哨水庫石棺墓及遺址調查」『考古』3期.
吉林市博物館·永吉縣文化館, 1983.「吉林永吉星星哨石棺墓第三次發掘」『考古學集刊』, 3集.
11) 돌널무덤의 무덤형식은 글의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돌널무덤 형식분류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최근 중국에서는 1985년 제12차 국제방사성탄소회의의 결정에 따라 고정밀보정곡선에 의한 보정방법을 쓰고 있다(中國社會科學院研究所編, 1991.『中國考古學中炭十四年代數据集(1965-1991)』, 文物出版社). 편차는 1sigma를 택하고 있다.
13) 宋玉彬, 1992.「試論星星哨墓葬的分期」『西團山文化學術論文集』, 江城文博總刊 3輯, p. 81.

(2) 西團山

西團山은 吉林市에서 서남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제2松花江이 흐르고 있다. 서쪽으로는 구릉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덤은 구릉의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돌널무덤 49기[14]가 발굴되었는데, 1950년과 1956년에 발굴된 21기의 무덤형식을 보면, 제1형식 10기, 제2형식 11기가 조사되었다.

껴묻거리는 21기의 무덤에서 148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대부분 갈아서 만들었는데, 일부는 떼어서 만든 화살촉이 있다. 토기는 모두 손으로 만든 모래질 민토기이다. 항아리는 목이 짧고 입이 바라진 항아리와 목이 길고 약간 바라진 항아리가 있다. 청동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이 밖에 9기의 무덤에서 돼지 뼈가 출토되었다. 껴묻거리가 많은 무덤은 26점이 출토된 XⅧ호 무덤(제2형식), 21점이 출토된 Ⅳ호 무덤(제2형식)이다.

(3) 騷達溝

騷達溝는 吉林市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市區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돌널무덤은 平頂山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大砬子·二砬子·西南溝·山咀子 등지에서 조사되었는데, 모두 28기가 발굴되었다. 1949년과 1953년에 발굴된 24기의 돌널무덤[15] 중에서 무덤 형식을 알 수 있는 것은 17기인데, 모두 제2형식에 속한다.

껴묻거리는 모두 총 118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모두 갈아서 만들었으며, 토기는 손으로 만든 모래질 민토기인데, 항아리에는 목이 약간 길고 입이 약간 바라진 것이 많다. 청동기로는 連珠狀飾物 등이 있다. 청동기는 17기 중에서 49M4호와 49M8호에서만 출토되었다. 東北考古發掘團에 의해 1950년에 조사된 山咀子 1호무덤에서는 철녹이 있는 청동 단추와 鐵片 1점이 출토[16]되었다.

이 밖에 騷達溝의 북쪽에 있는 平頂山 정상에서 돌널무덤 1기가 발굴[17]되었는데, 돌널의 크기는 250×150×150cm이다. 무덤방 바닥은 한 장의 큰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관은 없다. 벽은 크고 잘 다듬은 板石 1매를 세우고 그 위에 塊石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었다. 껴묻거리는 모두 71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청동기는 17점이며, 치레거리는 62점(87.3%)이다.

---

14) 李洵, 1987.「一九四八, 一九四九年 西團山發掘記錄整理」『西團山考古報告集』, 江城文博總刊 第一輯.
東北考古發掘團, 1964-1.「앞 글」
吉林大學歷史系文物陳列室, 1960.「吉林西團山子石棺墓發掘記」『考古』4期.

15) 段一平·李蓮·徐光輝, 1985.「吉林市騷達溝石棺墓整理報告」『考古』10期.

16) 佟柱臣, 1955.「吉林的新石器時代文化」『考古通訊』3期.

17) 吉林省博物館·吉林大學考古專業, 1985.「吉林市騷達溝山頂大棺整理報告」『考古』10期.

(4) 猴石山

猴石山은 吉林市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웃한 長蛇山 유적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돌널무덤 161기[18](제2형식 158기·제3형식 2기)가 발굴되었다. 1979년과 1980년에 실시된 2차 발굴 조사에서는 3개의 무덤 구역(西區(121기), 東區(20기), 南區(14기))이 조사되었는데, 西區의 무덤이 東區나 南區의 무덤보다 무덤 규모가 큰 것이 많고 껴묻거리도 풍부하다.

껴묻거리는 모두 1567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모두 손으로 만든 모래질 민토기로 토기 중에는 목이 길고 입이 약간 바라진 것과 입이 곧은 항아리가 있다. 청동기에는 비파형동검으로 생각되는 동검, 비파형동모, 부채살모양 청동도끼, 거울모양장식 등이 있다. 껴묻거리가 가장 많은 무덤은 445점이 출토된 79西70호 무덤이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은 2940±20 BP(보정값 서기전 1374-945)~2210±70 BP(보정값 서기전 389-173)까지 측정되었다.

(5) 長蛇山

長蛇山은 吉林市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230m로 남쪽에 제2松花江으로 흘러드는 牤牛河가 흐르고 있다. 이 곳에서는 돌널무덤 2기와 움무덤 2기가 발굴[19]되었다. 돌널무덤은 모두 제2형식에 속한다.

껴묻거리는 돌널무덤에서 석기 2점이 출토되었으며, 움무덤에서 세형동모 1점, 瑪瑙管 1점이 출토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은 2270±75 BP(보정값 서기전 402-211)로 측정되었다.

(6) 土城子

土城子는 길림시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제2松花江 右岸의 충적대지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1954년에 돌널무덤 26기[20]가 발굴되었다. 무덤 형식은 모두 제2유형에 속한다.

껴묻거리는 모두 130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67점(51%)이 치레거리이다. 토기는 모두 모래질 민토기이며, 청동기에는 손칼과 連珠狀飾物이 있다. 껴묻거리가 가장 많은 무덤은 55점이 출토된 22호 무덤과 28점이 출토된 12호 무덤이다. 60% 이상의 무덤에서는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았다.

---

18) 吉林地區考古短訓班, 1980.「吉林猴石山遺址發掘簡報」『考古』2期.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市博物館, 1993.「吉林市猴石山遺址第二次發掘」『考古學報』3期.
19) 吉林省文物工作隊, 1980.「吉林長蛇山遺址的發掘」『考古』4期.
20) 吉林省博物館, 1957.「吉林江北土城子古文化遺址及石棺墓」『考古學報』, 1期.

(7) 泡子沿 前山

泡子沿 前山은 吉林市 江北 龍潭區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2松花江이 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넓은 분지가 펼쳐져 있다. 해발은 222m 정도이다. 이 유적에서는 두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아래층이 西團山文化層으로 돌널무덤 11기, 독무덤 2기가 발굴[21]되었다.

무덤 형식은 제2형식 10기, 제1형식 1기가 조사되었다.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은 크기로 보아 유아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껴묻거리는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의 비율은 80%에 가깝다.

독무덤은 집자리 가장자리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독무덤은 입이 위쪽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큰 항아리 위에 화강암 판석을 위에 덮었다. 껴묻거리는 白石管 1점이 출토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은 2600±75 BP(보정값 서기전 829-662)로 측정되었다.

이 밖에 吉林市區의 團山子[22], 兩半山[23], 狼頭山[24], 永吉縣의 東梁崗[25], 小團山[26], 旺起屯[27], 蛟河市의 山頭屯[28], 小南溝[29], 八珲地[30], 磐石縣의 小西山[31], 汶水 後山[32], 樺甸市의 磴山[33], 雙陽縣의 萬寶山[34], 孤頂山[35], 磨盤山[36], 舒蘭縣의 黃魚圈 珠山[37], 西荒山屯[38], 楊屯大海猛[39] 등에서 무덤이 조사되었다.

---

21) 吉林市博物館, 1985.「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考古』, 6期.
22) 康家興, 1956.「團山子發現新石器時代文化遺跡」『文物參考資料』 1期.
23) 康家興, 1955.「吉林兩半山發現新石器時代文化遺址」『考古通訊』 4期; 張忠培, 1964.「吉林兩半山遺址發掘報告」『考古』 1期.
24) 吉林市博物館, 1989.「吉林市郊二道水庫狼頭山石棺墓地發掘簡報」『北方文物』 4期.
25) 吉林市博物館, 1983.「吉林口前藍旗小團山,紅旗東梁岡石棺墓清理簡報」『文物』 9期.
26) 吉林市博物館, 1983-9.「위 글」
27) 劉法祥, 1960.「吉林永吉縣旺起屯新石器時代石棺墓發掘簡報」『考古』, 7期.
28) 匡瑜, 1964.「吉林蛟河縣石棺墓清理」『考古』, 2期.
29) 匡瑜, 1964-2.「위 글」
30) 董學增, 1988.「吉林蛟河八珲地靑銅時代遺址及其附近"堡塞"遺跡調查」『遼海文物學刊』 1期.
31) 吉林省文物工作處, 1984.「吉林磐石吉昌小西山石棺墓」『考古』 1期.
32) 張志立・王洪峰, 1992.「磐石縣汶水后山石棺墓清理簡報」『西團山文化考古報告集』, 江城文博叢刊 第二輯.
33) 康家興, 1956.「吉林省樺甸二道甸子發現石棺墓」『考古通訊』 5期.
34) 許彦文, 1984.「吉林雙陽萬寶山石棺墓」『黑龍江文物叢刊』 3期.
35) 王嘩淸, 1992.「雙陽孤頂山石棺墓清理及遺址調查簡報」『西團山文化考古報告集』, 江城文博叢刊 第二輯.
36) 劉景文, 1983.「雙陽考古調查記」『博物館研究』 創刊號.
37) 吉林省文物工作隊, 1985.「吉林舒蘭黃魚圈珠山遺址淸理簡報」『考古』, 4期.
38)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 1982.「吉林樺甸西荒山屯靑銅短劍墓」『東北考古與歷史』 제1집.
39) 吉林市博物館, 1987.「吉林永吉楊屯大海猛遺址」『考古學集刊』, 5集.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永吉縣文化局, 1992.「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西團山文化考古報告集』, 江城文博叢刊 第二輯.

3. 돌널무덤의 형식분류

西團山文化지역 안에서 조사된 무덤은 돌널무덤, 움무덤[40], 독무덤[41], 竪穴岩石墓[42]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돌널무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인돌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사된 예는 없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형식분류를 중심으로 돌널무덤에 대한 형식분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분류기준

돌널무덤[43]은 지하에 움을 파고, 板石을 세우거나 板石이나 塊石을 쌓아서 벽을 만든 다음, 넓적한 돌로 뚜껑을 덮은 무덤을 말한다. 돌널의 크기는 대체로 한 사람을 바로펴묻기 할 정도의 크기이며,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다.

지금까지의 돌널무덤에 대한 형식분류는 翟德芳[44], 김동일[45], 劉景文[46], 三上次男[47] 등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翟德芳과 김동일은 무덤벽을 만든 방법을 기준삼아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과 판석이나 괴석을 쌓아서 만든 무덤으로 크게 구분하였는데, 김동일은 다시 부관의 유무에 따라 세분하였다.

劉景文은 크게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양 옆벽을 쌓아서 만들고 머리와 다리쪽 벽을

---

40) 움무덤은 長蛇山, 楊屯 大海猛, 西荒山屯에서 모두 9기가 조사되었다. 껴묻거리는 빈약한 편으로 대부분 생활용구인데, 9기에서 석제 4점·토제 3점·청동제 1점·기타 10점, 총 18점이 출토되었다.

41) 독무덤은 楊屯 大海猛, 泡子沿 前山에서 모두 6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單棺式 독무덤이다. 매장방법에는 토기의 입이 거주면과 수평인 경우(楊屯 大海猛 79W1호)와 거주면 위에 방치하는 경우(楊屯 大海猛 79W3호)가 있으며, 독을 판석으로 덮은 경우(泡子沿 前山 W2호)도 있다. 껴묻거리는 매우 빈약한 편으로 泡子沿 前山에서 白石管 1점이 출토되었다.

42) 竪穴岩石墓는 크게 무덤방과 널길로 구성되며, 무덤방을 큰 판석으로 덮었다. 이러한 무덤은 돌관무덤, 大石盖墓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西荒山屯, 梨樹上屯, 高麗炕山에서 모두 11기가 조사되었다. 西荒山屯에서 조사된 무덤의 묻은 방법은 多人·多次·火葬이며, 껴묻거리는 석제 416점·토제 20점·청동제 101점·철제 12점으로 모두 482점이 출토되었다. 껴묻거리 중에서 치레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43) 돌널무덤 중에서 규모가 큰 무덤을 통계분석을 통해서 돌덧널무덤으로 보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김동일, 1994.「수학적모형화에 의한 돌곽무덤 고찰」,『조선고고연구』2期), 아직까지는 시론단계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별없이 편의상 돌널무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두 돌널무덤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44) 翟德芳, 1991.「關于東北地區石棺墓遺存的幾個問題」『東北亞歷史與文化』, 遼沈書社, p. 125.

45) 김동일은 돌널무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쌓기식 돌널무덤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김동일, 1988-1.「앞 글」, p. 27. 참조).

46) 劉景文, 1983-1.「앞 글」, pp. 58-62.

47) 三上次男, 1961.『滿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세워서 만든 무덤·네벽을 모두 쌓아서 만든 무덤·간단화된 돌널무덤으로 구분하고, 다시 바닥시설과 부관의 유무에 따라 세분하였다.

三上次男은 한장의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여러장의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양 옆벽을 쌓아서 만들고 머리와 다리쪽 벽을 세워서 만든 무덤·네벽을 모두 쌓아서 만든 무덤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형식분류는 1차적으로 무덤벽을 만든 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바닥시설과 부관의 유무에 따라서 세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방법은 돌널무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중 네벽을 모두 쌓아서 만든 무덤 형식과 양 옆벽을 쌓아서 만들고 머리와 다리쪽 벽을 세워서 만든 무덤 형식을 구분하는 것(劉景文과 三上次男의 분류)은 쌓았다는 모티브가 같고 이들 무덤들이 같은 무덤구역 안에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묶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단화된 돌널무덤(劉景文의 분류)은 돌널무덤이 퇴화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무덤으로 어느 형식에도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무덤형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 장의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三上次男의 분류)은 아직까지 西團山文化地域에서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위에서 검토한 형식 분류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벽을 쌓은 방법에 따라 크게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제1형식)·판석이나 괴석을 쌓아서 만든 무덤(제2형식)·돌널무덤의 퇴화된 모습인 간단화된 돌널무덤(제3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큰 구분 속에서 다시 바닥시설과 부관의 유무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겠다.

(2)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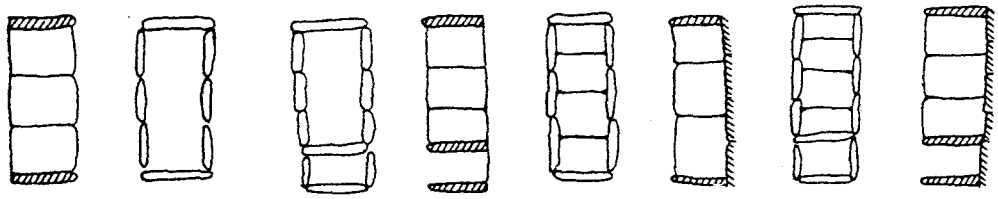
1) 제1형식

제1형식은 무덤방의 네벽을 몇장의 판석을 세워서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의 돌널을 만든 무덤을 말한다. 이 형식에 속하는 무덤에는 바닥 시설과 부관의 유무에 따라 다시 4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표 1, 그림 1).

- ◇ 1-1형식 : 무덤방 네벽을 판석을 세워서 만들었으며, 바닥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무덤.
- ◇ 1-1-1형식 : 1-1형식에 부관이 있는 무덤.
- ◇ 1-2형식 : 무덤방 네벽을 판석을 세워서 만들었으며, 무덤방 바닥에 판석을 깐 무덤.
- ◇ 1-2-1형식 : 1-2형식에 부관이 있는 무덤.

<표 1> 제1형식이 조사된 유적

무덤형식	조 사 유 적	무 덤 수
1 - 1	星星哨, 小西山, 東梁崗, 泡子沿 前山, 汶水 後山	43기
1-1-1	東梁崗, 小團山	3기
1 - 2	西團山, 東梁崗, 團山子, 狼頭山	4기
1-2-1	西團山, 東梁崗, 狼頭山	12기



<1-1형식> <1-1-1형식> <1-2형식> <1-2-1형식>

<그림 1>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들

2) 제2형식

제2형식[48]은 무덤방의 벽을 판석이나 괴석으로 쌓아서 만든 무덤을 말한다. 제2형식의 무덤은 바닥 시설과 부관의 유무에 따라 6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표 2,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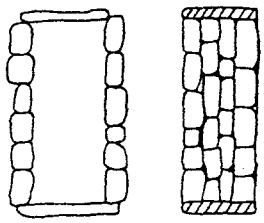
- ◇ 2-1형식 : 벽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무덤방 바닥에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은 무덤.
- ◇ 2-1-1형식 : 2-1형식에 부관이 있는 무덤
- ◇ 2-2형식 : 벽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무덤방 바닥에 돌을 깐 무덤.
- ◇ 2-2-1형식 : 2-2형식에 부관이 있는 무덤.
- ◇ 2-3형식 : 무덤방 벽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바닥에 진흙을 사용한 무덤[49].
- ◇ 2-3-1형식 : 2-3형식에 부관이 있는 무덤.

48) 제2형식에는 ① 양 옆벽만 쌓고 머리와 발쪽의 벽은 판석을 세워서 만든 무덤 ② 네벽을 모두 쌓아서 만든 무덤 ③ 벽을 세워서 만든 부분과 쌓아서 만든 부분이 섞여 있는 무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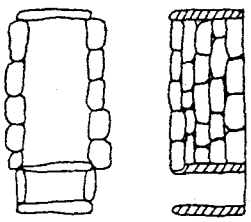
49) 무덤방 바닥에 진흙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사람이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진흙 테두리(泥框)를 한 경우와 진흙을 바닥에 깐 경우(泥台)가 있는데, 이는 나무덧널무덤으로 가는 과도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무덤 중에는 흙바닥(2-1형식) 위에 진흙을 사용한 경우와 바닥에 돌을 깔고(2-2형식) 그 위에 진흙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무덤에서 출토된 껴묻거리는 다른 무덤들에 비해 풍부하다. 한편 조사 예는 적지만 무덤 벽을 보강하기 위해서 진흙을 벽에 바른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다.

<표 2> 제2형식이 조사된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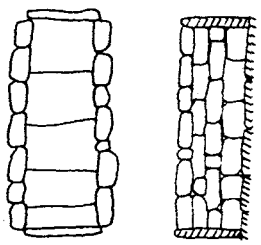
무덤형식	조 사 유 적	무 덤 수
2 - 1	星星哨, 小西山, 小團山, 狼頭山, 騷達溝, 猴石山, 長蛇山, 泡子沿 前山, 萬寶山	119기
2-1-1	小西山, 騷達溝	6기
2 - 2	西團山, 小團山, 騷達溝, 小南溝, 猴石山, 土城子, 兩半山, 泡子沿 前山, 磨盤山, 黃魚圈 珠山	64기
2-2-1	西團山, 小西山, 狼頭山, 騷達溝, 小城子	15기
2 - 3	小西山, 猴石山, 土城子, 孤頂山	46기
2-3-1	騷達溝, 猴石山	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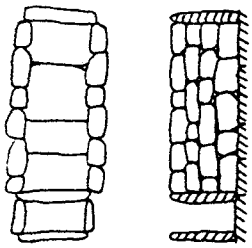
<2-1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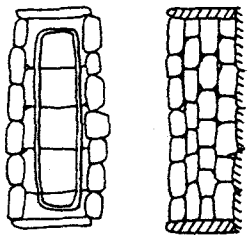
<2-1-1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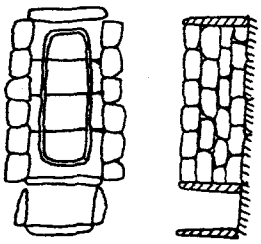
<2-2형식>



<2-2-1형식>



<2-3형식>



<2-3-1형식>

<그림 2> 제2형식에 속하는 무덤들

3) 제3형식

제3형식(간단화된 돌널무덤)은 무덤방을 "土石混築한 돌널무덤"으로 돌널무덤이 퇴화하여 움무덤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무덤으로 추정[50]되고 있다. 제3형식에 속하는 무덤은 猴石山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이 형식에 속하는 무덤들은 조사 예가 적고, 다른 형식의 무덤들과 섞여서 분포하고 있다.

껴묻거리는 빈약한 편으로 2기에서 도끼 3점, 끌 1점, 숫돌 1점, 有孔石器 1점이 출토되었다. 무덤의 크기는 큰 편에 속한다.

이들 여러 형식의 돌널무덤들은 주로 낮은 구릉이나 산기슭의 양지 바른 곳에 위치[51]하고 있는데, 늦은 시기의 유적인 土城子와 같이 강옆의 충적대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상대높이 40~80m 정도로 해발 200~400m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400m 이상인 유적은 매우 드물다.[52] 무덤 떼는 대체로 열을 이루고 있는데, 星星哨나 狼頭山 등의 예처럼 제1형식과 제2형식이 같은 무덤 구역 안에서 있을 때에는 제1형식이 무덤구역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묻은 방법은 대부분 仰身直肢葬이며, 아주 소수가 仰身屈肢葬이나 側身葬인데[53], 대체로 仰身直肢葬 이외의 방법은 후기에 속하는 유적에서 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單人葬이며, 母子合葬인 예(小城子)와 두개골이 4개가 출토된 예(旺起屯 中區 1호무덤)도 있다. 머리를 둔 방향(頭向)은 대체로 산 정상 쪽을 향하고 있다.[54] 껴묻거리가 놓인 위치는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는데, 치레거리는 주로 머리·목·가슴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기류와 청동제 무기류는 대체로 양손이나 허리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토기류는 부관이 있을 경우에는 부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관 없을 경우에는 발쪽에 위치하고 있다. 껴묻거리의 공반 관계를 보면, 가락바퀴·반달칼이 공반되는 경우와 화살촉·도끼·반달칼이 공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녀의 분업으로 해석되고 있다.[55]

돌널무덤의 여러 형식에서 출토된 껴묻거리의 비율[56]을 살펴보았다.

---

50) 劉景文, 1983-1. 「앞 글」, pp. 61-64.
51) 劉景文, 1983-1. 「위 글」, p. 57.
52) 董學增, 1987. 「試論西團山文化人們的埋葬習俗」 6期, p. 547.
53) 董學增, 1987-6. 「위 글」, pp. 548-549.
54) 劉景文, 1983-1. 「위 글」, p. 59.
55) 董學增, 1987-6. 「위 글」, p. 549.
56) 각각의 무덤형식들이 갖고 있는 시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출토된 껴묻거리 개수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1형식이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식간의 차이를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껴묻거리의 비율

종류 / 무덤형식	석 제	토 제	청동제	기 타	합 계	치레거리
1 - 1	52(42%)	64(52%)	·	8	124	5(4%)
1-1-1	6(38%)	10(62%)	·	·	16	2(13%)
1 - 2	6(67%)	3(33%)	·	·	9	·
1-2-1	39(51%)	34(45%)	2	1	76	10(13%)
소 계	103(46%)	111(49%)	2	9	225	17 (8%)
2 - 1	291(73%)	73(19%)	21(5%)	16	401	259(65%)
2-1-1	22(69%)	7(22%)	2(8%)	1	32	4(12%)
2 - 2	248(68%)	93(26%)	21(6%)	2	364	171(47%)
2-2-1	84(67%)	26(21%)	9(7%)	7	126	66(52%)
2 - 3	939(85%)	84 (8%)	71(6%)	13	1,107	948(86%)
2-3-1	87(89%)	6 (6%)	5(5%)	·	98	78(80%)
소 계	1,671(79%)	289(14%)	129(6%)	39	2,128	1,526(72%)
합 계	1,774(75%)	400(17%)	131(6%)	48	2,353	1,543(66%)

※ 치레거리는 전체 껴묻거리 가운데서 계산한 치레거리 개수이다.

제1형식에 속하는 돌널무덤은 주로 생활용구인 석제와 토제 껴묻거리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동기나 치레거리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청동기가 출토된 무덤 형식은 1-2-1형식으로 2점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많은 무덤이 조사된 1-1형식의 무덤에서는 치레거리 5점이 출토되었을 뿐 청동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제2유형에 속하는 무덤들은 대체로 석제의 비율이 높고 토제나 청동제의 비율이 낮다. 석제의 비율이 높은 것은 白石管이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인데, 물론 백석관은 여러 개를 연결하여 목걸이 등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 유물수는 줄어들겠지만 제1형식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개체 수나 비율면에서 상당히 높다. 제2형식 중에서 2-1-1형식에서 출토된 치레거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파괴된 무덤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2-3형식, 2-3-1형식에서는 치레거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돌널무덤 중에서 늦은 시기에 만들어 졌을 가능성과 집단 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해 준다.

제1유형과 제2유형에 속하는 무덤의 껴묻거리의 개체수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석기와 토

기의 비율은 제1형식의 무덤에서 높고, 치레거리와 청동기의 비율은 제2형식의 무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2유형이 제1유형보다 개수와 내용면에서 풍부하다는 점을 말해 주며, 동시에 제2형식이 제1형식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시기구분

돌널무덤은 오랜 시기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과 기존의 연대관에 대한 견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체 西團山文化에 속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정리해 보았다.

<표 4> 西團山文化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57]

유 적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BP)	보정값(서기전)
星星哨CM21호 무덤	2970±100	1376-1021
猴石山ⅡT2(3)F6	2940±20	1374-945
猴石山ⅡT2(3)	2910±100	1308-939
猴石山ⅡT1F5 -1.6m	2700±100	1180-595
楊屯 大海猛(3)F1	2660±75	898-794
黃魚圈 珠山F7	2640±70	891-791
猴石山 東區 M17호 무덤	2620±70	831-788
猴石山ⅠT1F1 2級階地	2600±70	828-663
泡子沿 前山F2	2600±75	829-662
楊屯 大海猛T1K-1 집자리면	2520±70	796-446
猴石山ⅡF2 3급계지	2520±75	797-440
東梁崗M1호 무덤	2420±100	768-400
猴石山ⅡT1F2하층	2360±75	736-389
西荒山屯 東山무덤	2350±90	744-382
長蛇山	2270±75	402-211
猴石山ⅡT1(2)M2호 무덤	2270±90	405-208
猴石山ⅡM34호 무덤	2210±70	389-173
楊屯 大海猛 탐색구덩이(3)	2100±75	347-3

57) 이 표는 대부분 中國考古學中炭十四年代數据集(1965-1991)에 실린 연대측정자료를 발췌하여 만들었다(中國社會科學院研究所編, 『中國考古學中炭十四年代數据集(1965-1991)』, 文物出版社, 1991). 이 표 중에서 西荒山屯의 연대값은 「放射性炭素年代報告(八)」에서 얻은 것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實驗室, 「放射性炭素年代報告(八)」『考古』 1981-4, p. 363).

연대측정값을 보면 星星哨의 2970±100BP(보정값 서기전 1376-1021)에서 楊屯大海猛의 2100±75BP(보정값 서기전 347-3)까지로 나타나는데, 연대값으로 보아 西團山文化의 연대 폭을 서기전 14세기~서기전 1세기말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대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견해로는 東北考古發掘團[58], 董學增[59], 황기덕[60], 박진욱[61]의 견해를 들 수 있다[62].

西團山文化의 상한에 대한 견해는 대개 星星哨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의 편년[63]과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64]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董學增·劉景文[65]의 12세기경(西周초기)설과 朱永剛[66]·황기덕의 서기전 10세기경(西周 중기)설이 있다. 하한에 대해서도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朱永剛·橋梁[67]·劉景文·황기덕의 戰國 晩期說과 董學增·박진욱의 秦漢 교체기설이 있다.

중국학계에서의 西團山文化의 발전단계에 대한 검토는 東北考古發掘團이 西團山유적을

58) 東北考古發掘團, 1964-1, 「앞 글」, p. 46.
59) 董學增, 1994. 「앞책」, pp. 235-246.
60) 황기덕, 1986-3. 「앞 글」, pp. 10-17.
61) 박진욱, 1987-2. 「앞 글」, pp. 6-10.
62) 각 견해들을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다.

발 표 자	발전단계에 대한 견해		
東北考古發掘團	西團山石棺墓期→騷達溝山頂大棺期→土城子石棺墓期		
董學增	早 期	中 期	晩 期
	星星哨, 西團山→	猴石山, 長蛇山→	土城子, 楊屯 大海猛
황기덕	서단산문화기	비파형동검기	세형동검기
	西團山·騷達溝→	星星哨→小西山→西荒山屯(1기)→	大青山→西荒山屯(2기)·長蛇山(2기)
박진욱	세 형 동 검 기		
	첫째부류(長蛇山)→	둘째부류(양둔 대해맹, 西荒山屯)	

63) 星星哨 AM19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AM19호 무덤의 무덤형식은 2-1형식에 속하며, 껴묻거리는 7점이 출토되었다.
64) 연대측정값은 CM21호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을 측정한 것이다. CM21호 무덤은 1-1형식에 속하며, 껴묻거리는 6점이 출토되었다.
65) 劉景文은 무덤형식을 중심으로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 무덤형식중에서 西團山유적에서 조사된 AⅢ식·AⅣ식·AⅡ식을 가장 앞선 형식으로 보았으며,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빠른 것으로 보았다(劉景文, 1983-1. 「앞 글」, pp. 62-63)
66) 朱永剛은 항아리(壺)의 목 길이와 바라진 정도를 기준하여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는데, 목이 짧고 바라진 항아리에서 목이 길고 곧은 항아리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그는 星星哨에서 출토된 것이 가장 이른 것으로 보았다(朱永剛, 1991. 「西團山文化墓葬分期研究」『北方文物』 3期, pp. 3-11).
67) 橋 梁, 1993. 「吉長地區西團山文化之後的幾種古代遺存」『遼海文物學刊』 2期, pp. 64-70.

발굴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 연대관이 제시되기 시작하여 董學增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董學增은 방사성탄소연대값과 각 유적에서 검출된 유구와 유물을 비교하여 西團山文化를 早·中·晩期 3시기로 구분하고 星星哨, 西團山(西周 初期~春秋 早期)→猴石山, 長蛇山(春秋 中期~戰國 中期)→土城子, 楊屯 大海猛(戰國 晩期~秦漢 교체기)순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早·中期의 토기는 기형이 壺, 罐, 鉢, 碗, 鼎, 鬲, 豆, 單孔甑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며, 대체로 砂質陶가 많고 구운 온도가 높지 않다. 晩期의 기형은 早·中期에 비해 비교적 복잡한데, 折肩大甕, 單耳杯, 舟形盤, 多孔甑이 새로이 만들어 졌다. 일반적인 砂質陶 외에 큰 석영입자가 낀 粗砂陶가 있는데, 구운 온도가 비교적 높다. 이 시기에는 慢輪으로 수정한 토기도 보인다. 토기중에서 비교적 변화가 풍부한 것은 항아리인데, 早期에는 벌어진 아가리에 몸통이 鼓腹과 垂腹으로 바닥지름이 입지름보다 크다. 中期에는 입이 조금 바라졌으며 목이 더 길어지고 바닥지름과 입지름이 비슷하다. 晩期에는 목이 곧고 더욱 길어졌으며 바닥지름이 입지름보다 작아졌다.

早期의 청동기는 무기와 장식품이 많고 도끼나 손칼 등의 공구는 드물게 출토되었다. 무기에는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모가 있고, 장식품에는 단추모양장식품, 手鐲 등이 있다. 中期에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지 않고 비파형동모만 출토되었다. 동모는 비파형과 세형이 있는데, 비파형동모는 早期에 비해 굽은 정도가 적어졌다. 도끼와 손칼 등의 생산 공구의 점유비율이 높은데, 도끼는 부채살모양으로 자루부분에 三角文이나 网格文이 양각 시문되어 있다. 손칼은 손잡이 부분에 톱니모양 돌기가 있는 것과 구멍이 있는 것이 있다. 이 시기에는 장식품의 종류도 많아졌는데, 단추모양 장식품, 勾形飾, 小鏡, 連珠狀飾物 등이 있다. 晩期의 청동기는 조사된 예가 많지 않은데, 동검·손칼·도끼의 모양은 早·中期와 다르다. 동검은 세형동검편이며, 손칼은 구멍이 있고 칼끝이 위로 휘어 올라갔다. 도끼는 부채살모양도끼인데, 한줄의 평행한 突起帶文만 시문되어 있으며, 몸통이 두꺼워지고 짧다.

무덤은 비교적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여주는데, 早期에는 수량상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많거나 비슷하고 발치에 副棺이 있는 무덤이 있다. 中期에는 제1형식이 적고 제2형식이 많아지는데, 무덤 중에는 벽에 접합제로 진흙을 바른 것이 있으며, 바닥에 黃泥框을 만든 무덤이 적지 않다. 이런 황니광은 조기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한편 몇몇 무덤에서 간단화된 돌널무덤과 副官이 보인다. 晩期에는 제2형식의 돌널무덤과 새로이 움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중국학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우선 그는 騷達溝 유적을 西團山, 星星哨와 함께 早期 포함시켰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 유적에서는 조사된 돌널무덤 형식으로 볼 때 西團山이나 星星哨에서는

제1형식과 제2형식이 모두 조사되었으나 騷達溝에서는 제2형식만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騷達溝에서 보이는 항아리의 형태는 星星哨나 西團山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목이 짧고 입이 바라진 항아리나 猴石山에서 보이는 목이 길고 입이 곧은 항아리는 보이지 않고 양자의 중간형태인 목이 길고 입이 약간 바라진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騷達溝에서 출토된 청동칼이나 青銅連珠狀飾物이 猴石山과 土城子 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들은 騷達溝가 西團山보다는 猴石山에 다 가깝다는 점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猴石山과 長蛇山을 같이 中期로 설정하였는데, 猴石山에서는 비파형동검편과 비파형동모가 출토되었고, 長蛇山에서는 움무덤에서 세형동모가 출토되어 같은 시기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황기덕과 박진욱의 글이 대표된다.

황기덕은 吉長地區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西團山文化(西團山→騷達溝), 비파형동검문화(星星哨→小西山→西荒山屯(1기)), 세형동검문화(大青山→西荒山屯(2기)·長蛇山(2기)) 3시기로 구분하였는데, 西團山文化를 비파형동검이 나타나기 이전 시기로 국한시켰다. 비파형동검문화의 연대를 서기전 10세기에서 서기전 5세기로 추정하고 서기전 4세기경에 세형동검문화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황기덕의 견해는 동검의 출토 여부와 동검의 형식분류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현재 항아리에 대한 형식 분류로 보아 騷達溝보다는 星星哨가 빠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西團山과 騷達溝를 모두 星星哨보다 앞선 단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박진욱은 吉林·長春지방 세형동검문화단계를 두부류로 구분하고, 계승성과 주변지역의 문화와 비교하였다. 그는 유구와 유물의 비교를 통하여 첫째부류에 속하는 유적으로 長蛇山 유적을 비정하고 연대를 서기전 5세기~4세기로 보았으며, 둘째부류에 속하는 유적으로 楊屯 大海猛유적·西荒山屯무덤·大青山무덤을 들고 연대를 서기전 3세기~2세기로 보았다. 한편 그는 이 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비파형동검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요동지방의 문화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고 기본적으로 문화가 같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기구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에서 살펴 본 연대측정값과 비교해 보면 西團山文化를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I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西團山, 星星哨, 小西山, 東梁崗 등으로 星星哨에서는 연대보정값이 서기전 1376-1021년으로 측정되었다. 星星哨와 小西山에서는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모가 출토되었는데, 비파형동검은 모두 초기형에 속한다.[68] 小西山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동검의 형태로 보아 二道河子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로 보고 있다.[69]

---

68) 박진욱 외,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p. 9.

69) 二道河子에서 출토된 초기형 비파형동검은 서기전 10세기초로 설정되고 있다(박진욱, 1987. 「위 책」,

이 시기에는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목이 짧고 입이 바라진 항아리가 보인다. Ⅰ기의 상한은 星星哨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연대보정값을 감안한다면 상한을 商末周初로 올려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한은 小西山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의 상대연대와 東梁崗 유적의 연대값으로 보아 서기전 8세기 전후로 볼 수 있다.

무덤 형식은 돌널무덤 제1형식과 제2형식이 모두 보이는데, 제1형식에서는 1-1형식·1-2형식·1-2-1형식이 조사되었고, 제2형식에는 2-1형식·2-2형식·2-2-1형식이 보이고 있다. 수적으로 제1형식이 2형식보다 많다

Ⅱ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小團山, 騷達溝, 猴石山 등이다. 이 시기에서는 猴石山에서 비파형동검으로 생각되는 동검편과 비파형동모가 출토되었다. 猴石山에서 출토된 비파형동모는 星星哨에서 출토된 것보다는 좌우돌기가 뚜렷하지 않다. 항아리는 목이 길어지고 입이 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돌널무덤이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돌널무덤에서 형식 분류한 모든 형식이 모두 보이고 있다. 수적으로는 제2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돌널무덤은 새로이 1-1-1형식·2-1-1형식·2-3형식·2-3-1형식이 보인다. 이 시기는 돌널무덤에서 분류한 형식이 모두 보이고 있다는 점과 부관이 있는 형식이 늘었다는 점, 제1형식이 퇴화되어 간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Ⅲ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적은 長蛇山, 西荒山屯, 土城子 등이다. 방사성탄소연대보정값은 西荒山屯에서 서기전 744-382년, 長蛇山에서 서기전 402-211년, 楊屯 大海猛에서 서기전 347-3년으로 측정되었다. 이 시기에서는 長蛇山에서 세형동모와 西荒山屯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는데, 西荒山屯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초기형[70]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토기의 기형도 다양해 졌으며, 집자리에서는 泥質土器가 보인다. Ⅲ기의 상한은 西荒山屯의 세형동검 상대연대와 長蛇山의 연대측정값으로 보아 서기전 4세기 초로 보이며, 하한은 楊屯 大海猛의 보정값으로 보아 戰國 末期로 보인다.

돌널무덤은 1-1형식·2-1형식·2-2형식·2-3형식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돌널무덤 제1형식과 부관이 있는 무덤형식이 퇴화되었고 새로운 무덤 형식(움무덤, 독무덤, 竪穴岩石墓)이 등장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은 돌널무덤의 퇴화기라는 것을 말해 준다. Ⅲ기는 철기[71]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西團山文化가 철기시대 문화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이다.

---

pp. 25-26).

70) 박진욱, 앞글, pp. 8-11. 西荒山屯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대청산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데 이청규는 대청산의 연대를 서기전 4세기경으로 보고 있다(이청규, 1993.「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국사관논총』42집, pp. 16-17).

71) 西荒山屯에서는 이미 철제품이 껴묻거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1950년에 조사된 騷達溝 山咀子 1호 무덤에서 반달칼, 화살촉, 白石管, 玉管, 玉墜, 청동도끼 4점, 청동단추 3점(1점은 철녹이 묻어 있음), 철편(?) 1점이 출토(佟柱臣,「吉林的新石器時代文化」『考古通訊』1955-2)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철기시대의 개시연대를 서기전 7세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리병선, 1967.「압록강유역의 철기시

위에서 설정한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각 시기에서 보이는 무덤 형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각 시기에서 보이는 무덤 형식

시기 구분	중요 유적	연대	무덤 형식		
			돌널무덤		나머지
Ⅰ기	星星哨 西團山	商末周初~ 8세기 전후	1-1 1-2, 1-2-1	2-1 2-2, 2-2-1	
Ⅱ기	騷達溝 猴石山	8세기 전후~ 5세기 말	1-1, 1-1-1 1-2, 1-2-1	2-1, 2-1-1 2-2, 2-2-1 2-3, 2-3-1	
Ⅲ기	長蛇山 土城子	4세기 초~ 3세기 말	1-1	2-1 2-2 2-3	움무덤, 독무덤 竪穴岩石墓

4. 돌널무덤의 크기 비교

주요 유적에서 조사된 돌널무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길이·너비·장폭비의 평균값을 조사해 보았다.[72]

<표 6> 돌널무덤의 크기 비교

(단위 : cm)

유적	전체 평균			1형식			2형식		
	길이	너비	장폭비	길이	너비	장폭비	길이	너비	장폭비
평균	170.9	45.1	4.2	134.1	32.3	4.7	172.5	47.0	4.04
星星哨	159.7	53.1	3.3	152.1	45.4	3.5	182.4	60.7	3.1
西團山	153	38.6	4.0	147.2	35.5	4.2	158.9	41.7	3.7
騷達溝	186.6	48.6	4.0	·	·	·	186.6	48.6	4.0
猴石山	208.9	59.6	4.3	·	·	·	208.7	49.1	4.8
泡子沿前山	146.6	25.6	5.5	103	16	6.4	125.7	35.1	4.6

대의 시작」『고고민속』 1期).

72) 유적의 선택은 분석이 가능하고 비교적 무덤수가 많은 유적을 선택하였으며, 무덤방의 비교 기준에서 깊이를 제외한 이유는 깊이가 무덤의 파괴 정도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은 제1형식에 속하는 돌널무덤이고, ■은 제2형식에 속하는 돌널무덤을 나타낸다.

길이의 전체 평균값은 170.9cm로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작다. 유적간에는 泡子沿 前山<西團山<星星哨<騷達溝<猴石山 순으로 나타난다.

너비의 전체 평균값은 45.1cm로 역시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작다. 유적간에는 泡子沿 前山<西團山<騷達溝<星星哨<猴石山 순으로 나타난다.

장폭비의 전체 평균값은 4.2:1로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크다. 유적간에는 星星哨<西團山<騷達溝<猴石山<泡子沿 前山 순으로 나타난다.

제1형식이 제2형식보다 만들어진 시기가 빠르다는 점을 비추어볼때, 제2형식이 전반적으로 제1형식보다 길이와 너비는 크지만 장폭비가 작다는 것은 무덤을 더욱 견고하고 크게 만들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경제력의 발전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騷達溝나 猴石山이 西團山이나 星星哨보다 길이와 너비면에서 큰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돌널무덤의 성행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泡子沿 前山이 다른 유적에 비해 길이는 짧고 장폭비가 큰 것은 무덤의 규모가 작아지고 세장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는 이미 돌널무덤의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전반적으로 장폭비의 값이 시기가 늦어질수록 커진는 점도 돌널무덤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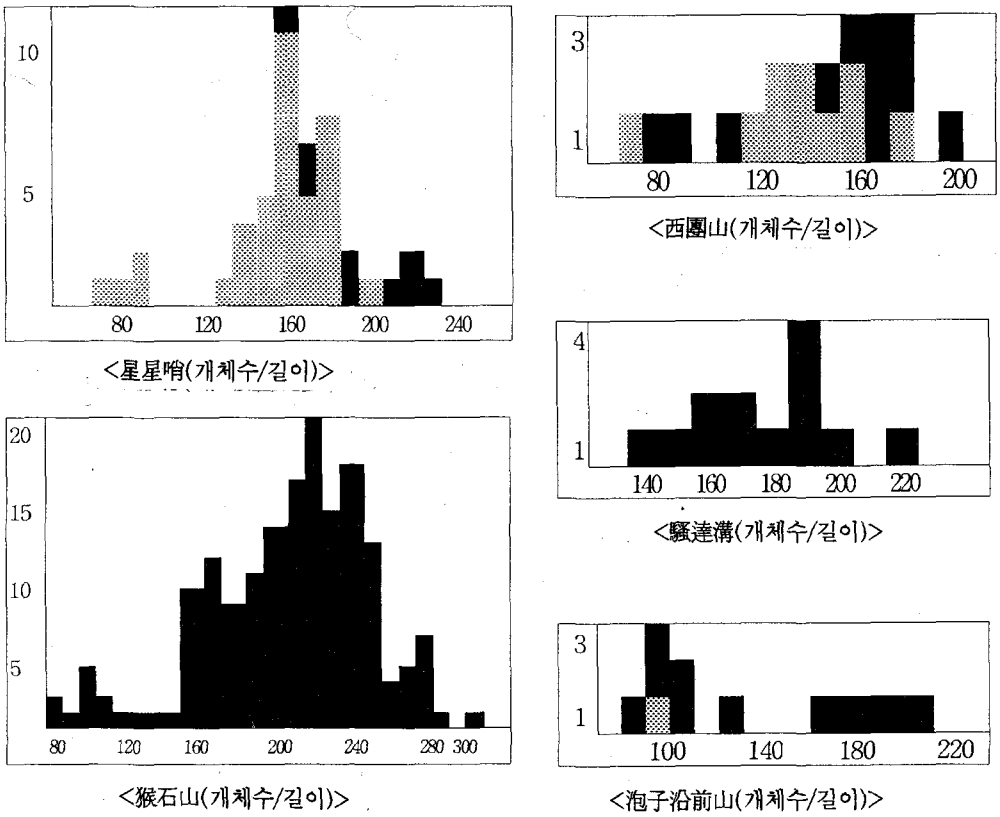
위의 평균값을 참고하면서 각 유적의 무덤 길이를 살펴보자(그림 3). 각 유적에서 보이는 길이값(표 6)과 길이 분포도(그림 3)는 유적간의 시기차와 계층성에 대한 일면을 보여 준다.

星星哨는 1형식·2형식 평균은 넘지만 전체 평균에는 미달하고 있으며, 전체무덤의 50% 정도가 160~190cm에 모여 있다. 전체 평균값이나 星星哨의 평균값보다 작은 무덤은 모두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이다. 길이가 2m이상인 큰 무덤들은 모두 5기로써 1기를 제외하고 모두 제2형식에 속하는 무덤들이다. 제1형식 평균값과 제2형식 평균값 사이의 차이는 西團山 유적보다 크다. 西團山보다 星星哨가 평균값이 높지만 개개 무덤에서는 평균값에 미달하는 무덤수가 많다는 점은 星星哨가 西團山보다 빠른 동시에 장시간에 걸쳐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西團山은 1형식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체평균과 제2형식 평균보다는 작다. 제1형식 무덤은 평균값 좌우로 비슷 개체수로 분포하고 있다. 제2형식은 대체로 평균값을 넘는 무덤이 많은데 작은 무덤과 큰 무덤이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보인다. 길이가 2m이상 큰 무덤은 제2형식 1기뿐이다.

騷達溝는 평균값을 모두 넘고 있다. 전체 평균값을 넘는 무덤은 많지만 騷達溝의 평균값을 넘는 무덤수는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m이상 큰 무덤은 많지 않다.

猴石山은 전체 평균값을 모두 넘고 있으며, 개개 무덤 크기를 봐도 대부분의 무덤들은 전체 평균값을 넘고 있다. 猴石山 평균값을 넘는 무덤의 수(2m 이상)는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덤 수의 절반 이상이 210~240cm에 있다. 무덤 크기의 분포가 다른 유적에 비해 광범위하고 무덤 자체가 크다는 점은 돌널무덤의 전성기라는 점을 말해 준다.



<그림 3> 각 유적의 돌널무덤 크기 비교(개수/무덤 길이)

泡子沿 前山은 전체 평균값이나 제2형식 평균값에 모두 미달한다. 무덤의 길이는 뚜렷하게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무덤들은 모두 껴묻거리가 빈약한데, 이러한 점은 후기에는 유적 내외의 중층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점은 각 유적에서 껴묻거리가 출토된 무덤 수와 출토되지 않은 무덤 수를 비교[73] 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73) 표는 <劉景文, 1983.「西團山文化經濟形態初探」『黑龍江文物叢刊』1期, p. 25.>에 있는 표를 수정하여 만들었다.

<표 7> 껴묻거리가 있는 무덤 수와 없는 무덤 수의 비교

유 적	껴묻거리가 있는 무덤	껴묻거리가 없는 무덤
西團山 50, 56	20	1 (4.8%)
星星哨 78	38	11 (22.4%)
騷達溝	14	3 (17.6%)
猴石山 79, 80	160	59 (36.8%)
土城子	12	20 (62.5%)
泡子沿 前山	3	10 (76.9%)

<표 7>을 보면,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의 비율이 西團山이나 星星哨보다 土城子와 泡子沿 前山에서 높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무덤 사이의 편차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은 움무덤과 독무덤에서 껴묻거리가 거의 출토되지 않았고 豎穴岩石墓에서 출토된 유물의 수량과 내용이 풍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한편 蛟河縣에서 조사된 보루[74]의 존재 또한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보루의 존재는 그 당시 사회가 긴장상태였다는 점을 말해 주는데, 이 보루에 대해서는 지표 조사된 것이어서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보루에서 조사된 유물들로 보아 西團山文化에 속하는 유적[75]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 맺 음 말

西團山文化는 길림성 중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문화이다. 이 지역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第2松花江을 중심으로 여러 하천들이 거미줄처럼 흐르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은 해발 500m 이하인 구릉지대가 많다. 이 곳에 거주했던 西團山文化의 담당자들은 돌널무덤, 움무덤, 독무덤 등 여러 종류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들 무덤들 중에서 돌널무덤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74) 보루는 蛟河縣 池水鄕과 松江鄕에서 약 10곳 정도가 조사되었다. 보루들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지름이 약 20-40m 정도이다. 이들 보루들은 蛟河의 오른쪽 강가를 따라 열을 이루며 만들어 졌다. 보루 사이의 거리는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장 멀리 떨어진 경우가 9Km 정도이다 (董學增, 1988-1. 「앞 글」, pp. 48-49).

75) 연대와 성격에 대해서는 春秋 말기~戰國 초기에 만들어진 원시사회 말기의 "部界堡塞"로 보는 견해 (董學增, 1988-1. 「위 글」, p. 49.)와 서기전 10세기경에 만들어진 한쪽 경계선이 100리 가량되는 일정한 크기의 영토를 가진 국가가 출현했다고 보는 견해(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1991. 『조선전사 2』 (고대편) 제2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 130.)가 있다.

돌널무덤은 만든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11가지 형식으로 분류해 보았다. 분류는 무덤벽을 만든 방법에 따라 제1형식(판석을 세워서 무덤벽을 만든 무덤)·제2형식(판석이나 괴석을 쌓아서 무덤벽을 만든 무덤)·제3형식(돌널무덤이 퇴화된 간단화된 돌널무덤)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바닥 시설과 부관의 유무에 따라 세분해 보았다.

이들 돌널무덤에서 출토된 껴묻거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제2형식에 속하는 무덤들이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들보다 껴묻거리 내용이 풍부하며, 특히 2-3형식과 2-3-1형식에 속하는 돌널무덤의 껴묻거리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무덤이 늦은 시기에 만들어 졌으며, 집단 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무덤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제1형식이 제2형식에 비해 길이와 너비는 작고, 장폭비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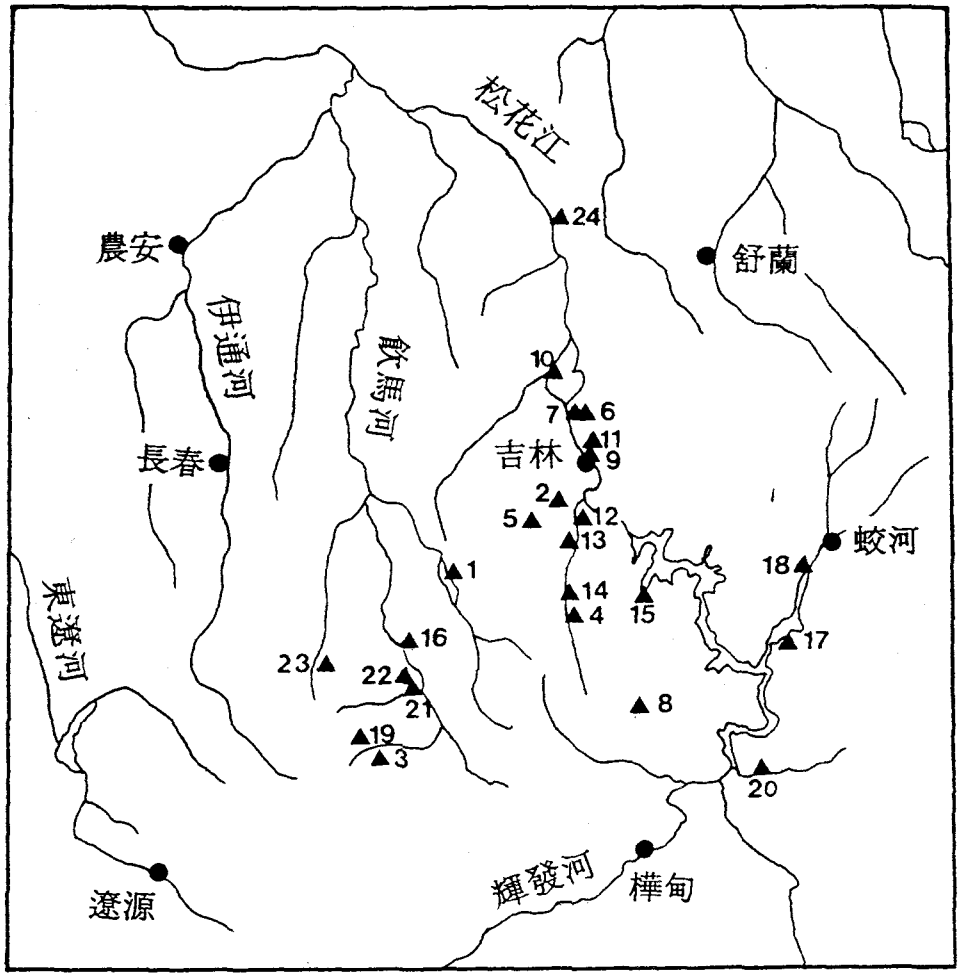
이들 무덤을 만들었던 西團山文化는 대체로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商末周初에서 戰國末까지로 보이는데, 이러한 연대폭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까지를 포함한다.

Ⅰ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星星哨, 西團山 등으로 연대는 商末周初~서기전 8세기 전후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돌널무덤 제1형식과 제2형식이 조사되었는데,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 더 많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껴묻거리는 생활용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동제 껴묻거리의 수량과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Ⅰ기에 속하는 무덤에서 출토된 껴묻거리의 평균 개수는 많지 않을 뿐만아니라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 비율은 극히 낮다.

Ⅱ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騷達溝, 猴石山 등으로 연대는 서기전 7세기~5세기말경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돌널무덤이 성행했던 시기로 거의 모든 형식의 돌널무덤이 조사되었는데, 수적으로 제2형식에 속하는 무덤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1형식에 속하는 무덤들이 퇴조되었다. 돌널무덤의 평균 껴묻거리 개수는 Ⅰ기와 Ⅲ기보다는 많다.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의 비율은 Ⅰ기보다 높아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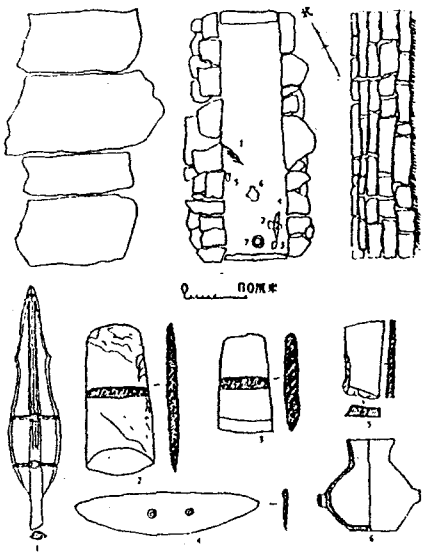
Ⅲ기는 철기시대 문화로 나아가는 이행기로 西團山文化의 해체기이다. 대표적인 유적은 長蛇山, 土城子, 泡子沿 前山 등으로 연대는 서기전 4세기초~戰國 末期인 3세기말경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돌널무덤이 쇠퇴하고 움무덤이나 독무덤 등 다른 무덤들도 만들어졌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들에서 조사된 돌널무덤의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길이와 너비는 전반적으로 Ⅲ기 < Ⅰ기 < Ⅱ기 순이며, 장폭비는 Ⅰ기 < Ⅱ기 <Ⅲ기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껴묻거리는 Ⅲ기에 들어서서 종류와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껴묻거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Ⅲ기에 들어와서 무덤간의 편차가 심화되었고, 껴묻거리가 풍부하게 부장된 유적과 그렇지 않은 유적간의 편차도 확대되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편차의 확대는 이후 夫餘의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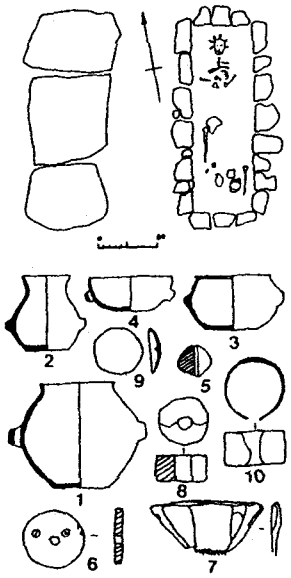
<그림 4> 발굴 조사된 西團山文化에 속하는 유적 분포

1. 星星哨 2. 西團山 3. 小西山 4. 東梁崗 5. 騷達溝 6. 長蛇山 7. 猴石山
8. 西荒山屯 9. 土城子 10. 大海猛 11. 泡子沿 前山 12. 兩半山 13. 狼頭山
14. 小團山 15. 旺起屯 16. 小城子 17. 小南溝 18. 八珲地 19. 汶水 后山
20. 磴山 21. 萬寶山 22. 孤頂山 23. 磨盤山 24. 黃魚圈珠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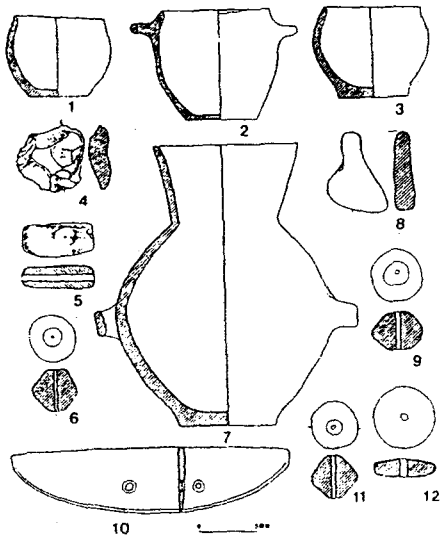
1. 비파형동검 2·3. 도끼 4. 반달칼 5. 숫돌
6. 항아리 7. 단지

<그림 5> 星星哨 AM19호 무덤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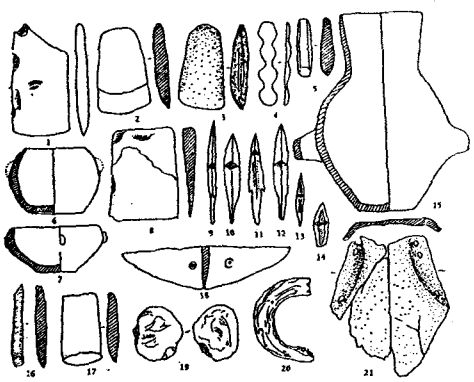
1. 단지 2. 항아리 3·4. 바리 5·6. 방추차
7. 나무빗 8. 木環 9. 단추모양장식 10. 팔찌

<그림 6> 星星哨 DM16호 무덤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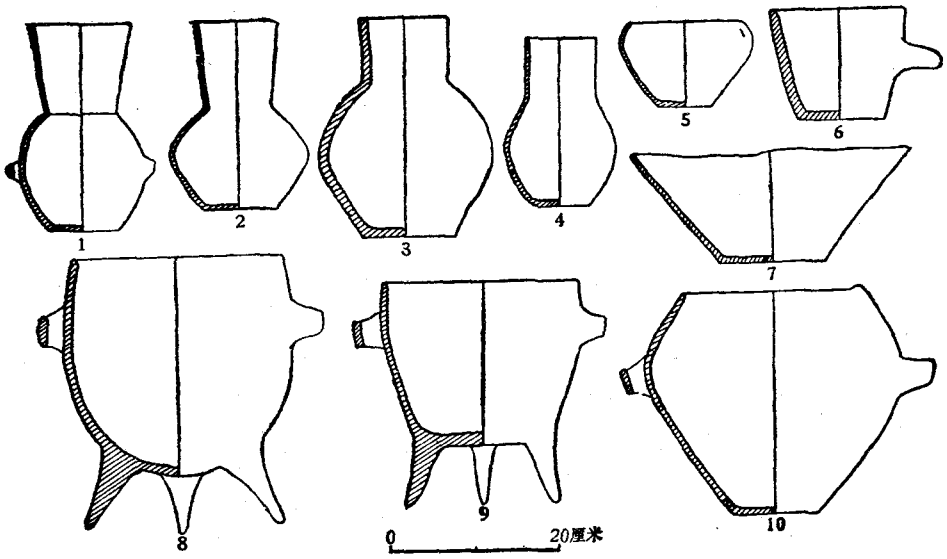
1~3. 바리 4. 칼 5. 어망추 7. 항아리
6·9·11·12. 가락바퀴 8. 숫돌 10. 반달칼

<그림 7> 西團山 II·IV호 무덤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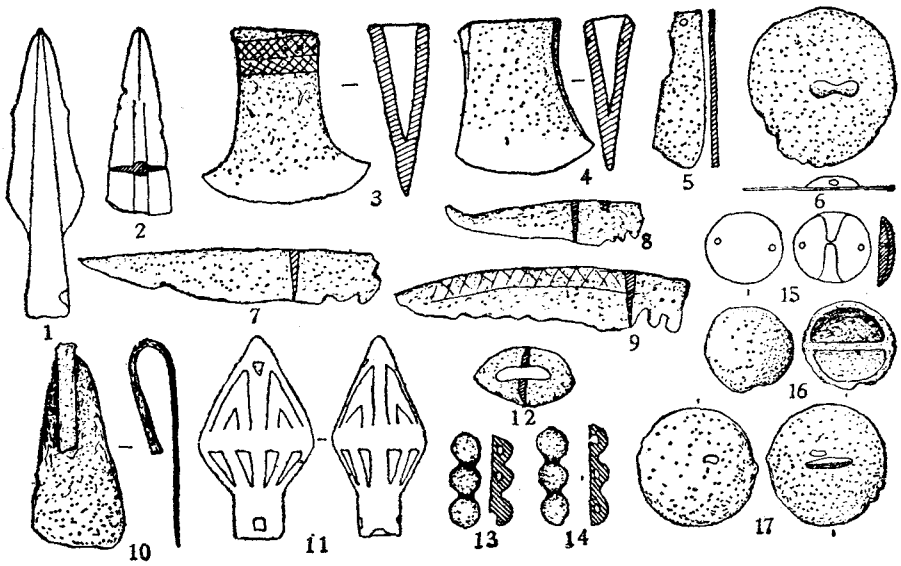


1~3·8. 도끼 4. 連珠狀飾物 5·16. 끌 6. 단지 7. 바리
9~14. 화살촉 15. 항아리 17. 옥제 도끼 18. 반달칼
19. 石球 20. 멧돼지이빨장식 21. 五邊六孔飾物

<그림 8> 騷達溝 JSM14·18호 무덤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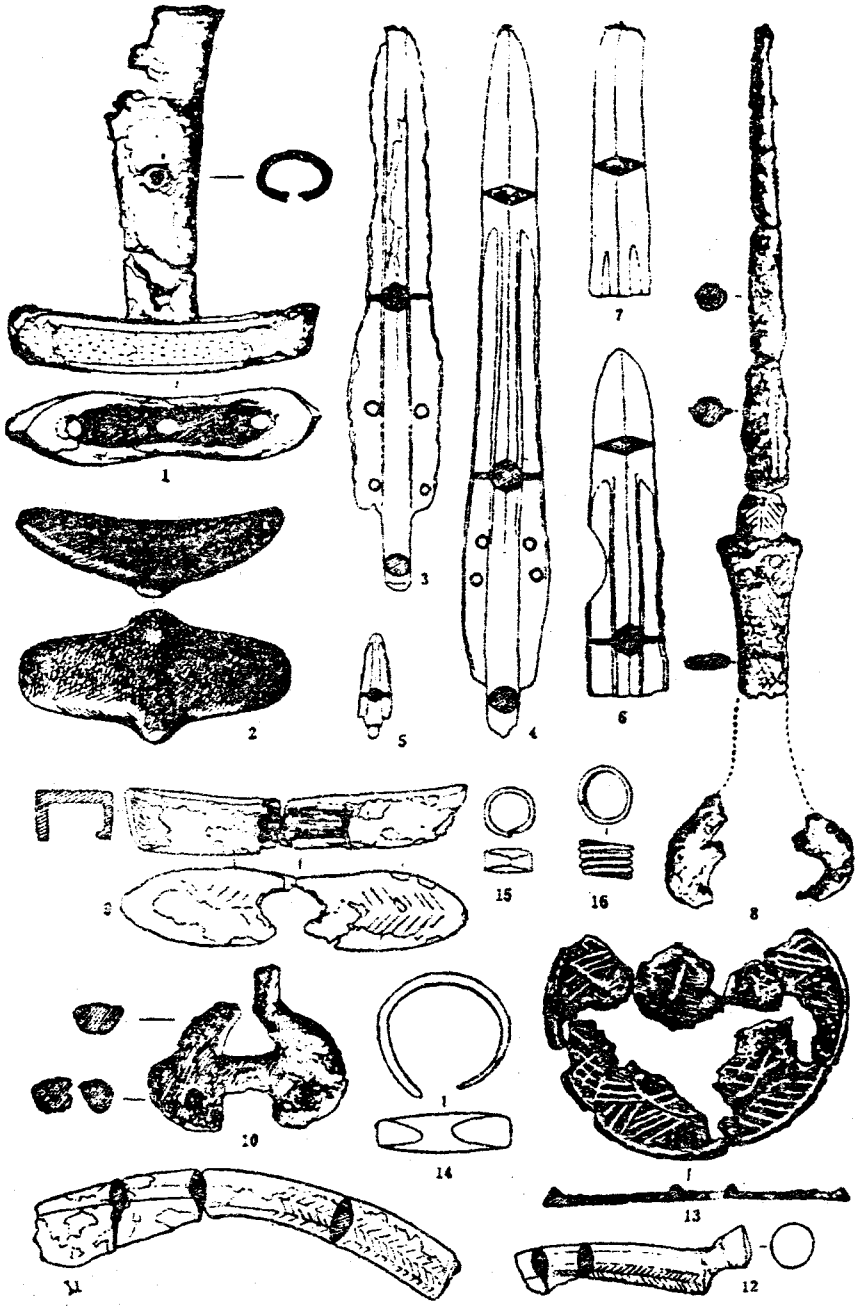


1~4. 항아리 5. 바리 6. 사발 7. 대접 8·9. 세발솥 10. 단지



1. 비파형동모 2. 비파형동검편 3·4. 도끼 5. 片飾 6. 거울모양장식 7~9. 손칼
10. 勾 11. 樓孔菱形飾 12·15~17. 단추모양장식 13·14. 連珠狀飾物

<그림 9> 猴石山에서 출토된 토제·청동제 껴묻거리



1·9. T자형손잡이 2. 검자루맞추개돌 3·4·6·7. 세형동검 검몸
5. 화살촉 8. 촉각식손잡이검 10. 촉각식손잡이 11·12. 손칼
13. 거울 14. 팔찌 15. 반지 16. 용수철형동기

<그림 10> 西荒山屯에서 출토된 청동제 껴묻거리